

작업장에서 안전이 우선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 43.6%

지난 45년여 간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370만 명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인구(356만 명, 2009년 1월 기준)보다도 많은 수치이며 사망자수는 지난 해 2,442명으로 한 시간 당 1.2명(5일/주, 8시간/일)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사망자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도 약 16조 원에 이르러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3조원)에 5.3배에 이른다.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관리자와 현장의 근로자 간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관리자 1,190명과 근로자 1,020명에 대해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210명 중 관리자가 1,190명, 근로자가 1,020명이었다. 지역적 분포로는 서울(200명), 부산(444명), 대구(340명), 인천(384명), 광주(435명), 대전(306명)이었다. 사업장 규모는 5~49인(668명), 50~99인(878명), 100~299인(444명), 300~499인(67명), 500인 이상(135명)이었다.

2.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간 안전 의식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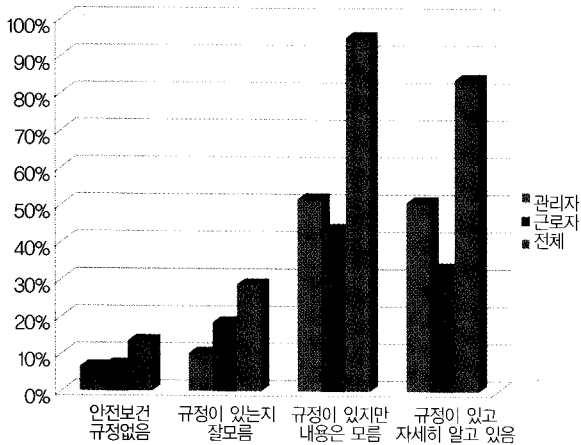
가. 관리자와 근로자 간 안전보건 규정에 대한 인식 차이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안전보건규정이 없다' (6.11%), '안전보건규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12.99%), '안전보건규정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43.01%),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자세히 알고 있다' (37.89%)로 나타났다.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규정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정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관리자가 8.57%, 근로자가 18.16%로 근로자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안전보건규정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규정이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 관리자 43.36%, 근로자 42.59%로 관리자가 더 높게 나타나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리자의 안전보건규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 하루속히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규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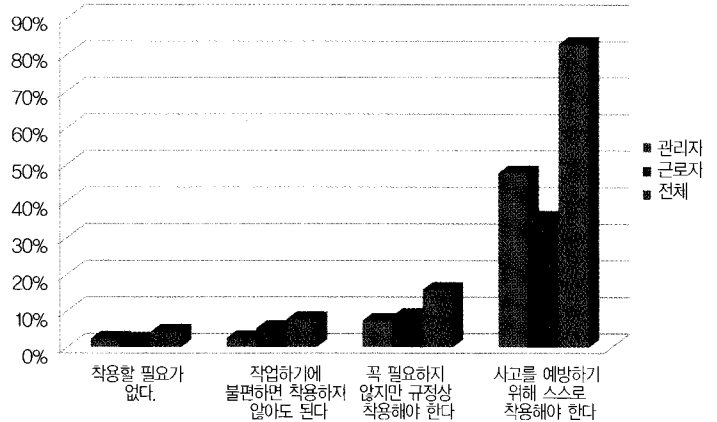
나. 관리자와 근로자 간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 차이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구 착용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착용할 필요가 없다' (3.85%), '작업하기에 불편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6.93%),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규정상 착용해야 한다' (14.26%),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착용해야 한다' (74.97%)로 나타났다.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관리자가 80.0%, 근로자가 69.1%로 근소한 차이로 보호구에 대한 인식은 관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1〉 안전보건규정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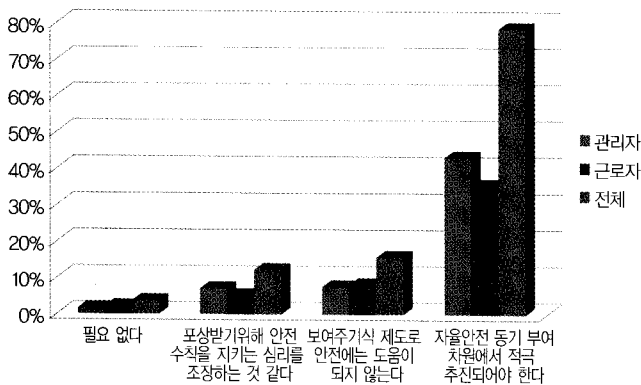
〈그림 2〉 보호구착용에 대한 인식

다. 관리자와 근로자 간 포상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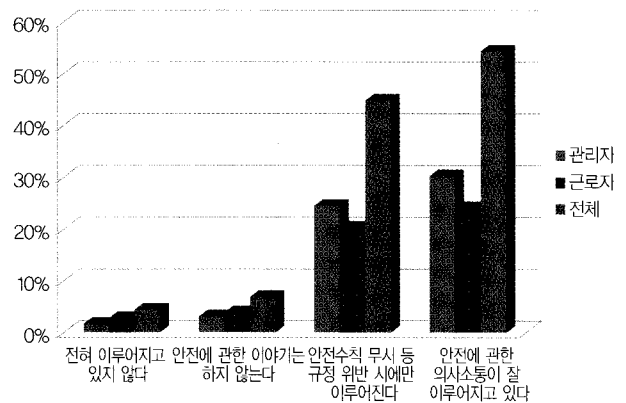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포상제도는 필요 없다'(3.4%), '포상받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심리를 조장하는 것 같다'(11.1%), '보여주기식 제도로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14.3%), '자율안전 동기 부여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71.3%)로 나타나 각 기업에서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상제도에 대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라.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근로자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림 3〉 포상제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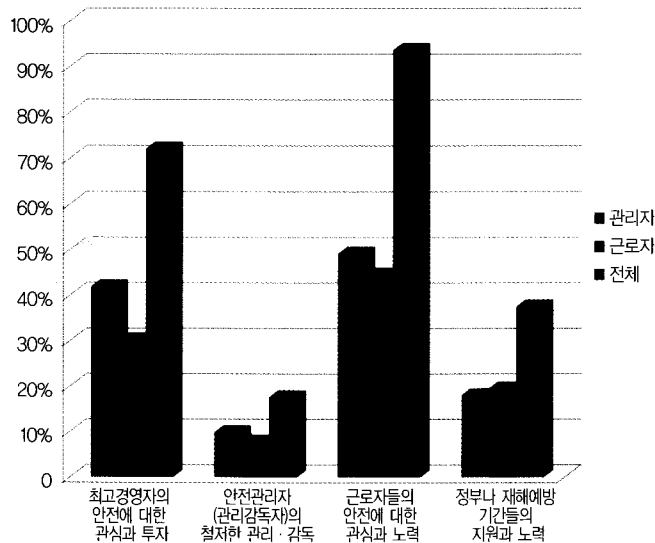
〈그림 4〉 안전과 관련된 관리자 근로자간 의사소통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3.9%),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6.2%), '안전수칙 무시 등 규정 위반 시에만 이루어진다'(40.6%), '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49.2%)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무시 등 규정 위반 시에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관리자와 근로자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평소에도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응답한 관리자는 50.9%, 근로자는 47.3%로 나타나 관리자가 근로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4)

마. 작업장에서 안전이 우선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

작업장에서 안전이 우선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32.6%),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철저한 관리·감독'(7.9%),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43.6%), '정부나 재해예방기관들의 지원과 노력'(16.9%)으로 나타나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나 재해예방기관들의 지원과 노력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관리자, 근로자 모두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안전이 우선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나 관리감독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보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함을 말했다.(그림 5)



〈그림 5〉 안전이 우선되기 위한 조건

3.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간 안전의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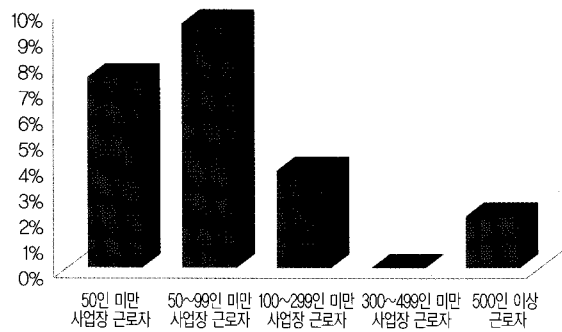
가. 사업장 규모별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차이

'나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7.4%, 50~99인 미만의 사업장 9.4%, 100~299인 미만 사업장 3.8%,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0%, 500인 이상의 사업장 2.0%로 나타났다. '사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4.8%, 50~99인 미만의 사업장 6.7%, 100~299인 미만 사업장 2.4%,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7.7%, 500인 이상의 사업장 4.0%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66.1%, 50~99인 미만의 사업장 62.8%, 100~299인 미만 사업장 77.9%,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76.9%, 500인 이상의 사업장 78.0%로 나타나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99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6)

나. 사업장 규모별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 차이

'안전교육이 법적 사항이라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50인 미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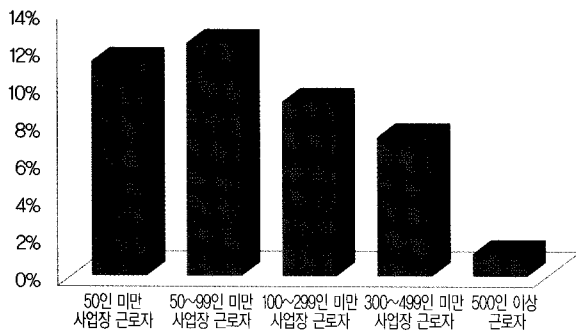
장 관리자 11.3%, 50~99인 미만의 사업장의 관리자 12.2%, 100~299인 미만 사업장의 관리자 9.2%,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관리자 7.3%, 500인 이상의 사업장 관리자 1.18%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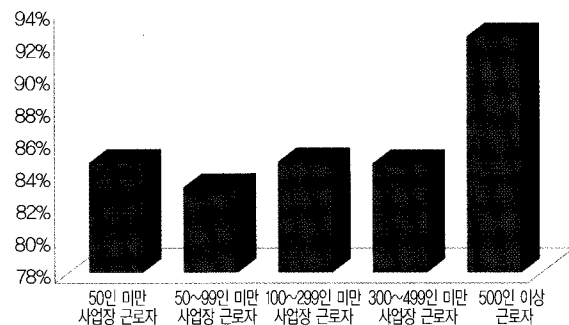
〈그림 6〉 나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 사업장 규모별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7.7%, 50~99인 미만의 사업장 5.5%, 100~299인 미만 사업장 2.4%,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3.9%, 500인 이상의 사업장 0%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2.6%, 50~99인 미만의 사업장 3.7%, 100~299인 미만 사업장 1.4%,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3.9%, 500인 이상의 사업장 0%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동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5.1%, 50~99인 미만의 사업장 7.7%, 100~299인 미만 사업장 7.5%,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7.7%, 500인 이상의 사업장 8.7%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깨질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84.7%, 50~99인 미만의 사업장 83.2%, 100~299인 미만 사업장 84.7%, 300~499인 미만의 사업장 84.6%, 500인 이상의 사업장 92.3%로 나타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의 행복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림 8) ☺



〈그림 7〉 사업장 규모별 안전교육의 대한 인식 차이



〈그림 8〉 안전사고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깨질 수 있어서